

에너지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김진우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금년 환경은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닐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UAE 원전 수주에 뒤이어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해외 에너지·자원 여건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항상 국제유가 및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동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해외 자원개발은 아직 외국의 자원개발전문기업에 비해 투자규모나 경쟁력이 미약하여 단기간에 큰 성과를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이제 10%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우선 최근 국제 에너지시장의 여건을 활용해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녹색에너지분야에서 우리의 높은 정보기술(IT) 및 플랜트설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대기업의 선제적인 녹색산업 투자는 이 분야가 향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정부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위협요인은 먼저 기후변화 의무부담 압력의 증대다. 비록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국제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기는 하지만 포스트 2012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타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내적으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히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악화나 전력수요의 빠른 증가를 볼 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사회 구축이 막연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가정용 전력요금도 석유제품 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가격 인상에 대한 높은 저항감이 전력요금 현실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에너지시설에 대한 낮은 수용성 및 저조한 에너지절약의식 역시 우리의 에너지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다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2011년은 많은 장애요인을 하나씩 해소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에너지분야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